

개척 사역의 실제
(사도행전 13:1-12)

영적 싸움은 세상의 지위나 명예, 학벌,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개척 사역의 실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 구브로섬의 영적 실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나서 최초의 정식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첫 선교지인 구브로섬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섬의 중심지는 바보라는 이름의 도시였고, 핵심 지도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구브로섬을 영적으로 개척하는 일, 즉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땅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옆에는 유대인 마술사인 바예수, 곧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선지자라고 속이며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미혹했습니다. 구브로섬의 영적 개척은 마술사 엘루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 영적 싸움의 실제

■ 바울을 대적하는 마술사

엘루마는 바울 일행의 전도를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권세와 영역을 다 뺏긴 채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대상은 총독이었지만, 총독을 설득한다고 해서 전도가 완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독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엘루마와의 영적 싸움이 전도의 승부처였습니다. 구브로섬의 개척 여부는 바로 그 영적 싸움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 마술사를 대적하는 바울

• **성령 충만함:**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행 1:8).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마 12:28).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는 기도의 돌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돌파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 **악한 자의 정체를 드러냄:** 바울은 총독 앞에서 엘루마의 거짓된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악한 자는 강한 자의 눈을 피하듯 엘루마보다 영적으로 더 강했던 바울이 기선제압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엘루마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이 엘루마보다 영적으로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엘루마가 마귀의 자식이자 의의 원수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엘루마에게 주의 바른길을 굽게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 **악한 자를 대적함:** 악한 영이 가진 능력의 원천은 속여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엘루마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더 이상 이전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몰려와 엘루마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은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엡 6:12).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십자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바울처럼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 **총독의 구원:** 총독은 바울과 엘루마의 영적 싸움을 다 지켜봤습니다. 총독은 엘루마의 정체를 깨닫고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겁니다. 동시에 그동안 그런 엘루마에게 속아왔던 것에 더 크게 충격받았을 겁니다. 사실 총독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루마를 통해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쫓겨나가자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즉시 믿게 되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게 된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의 구원은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결과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오기 전까지 구브로섬은 엘루마의 세상이었습니다. 엘루마의 정체를 폭로할 자도, 엘루마와 싸워 이길 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인 바울을 통해 엘루마가 쫓겨나가자 총독이 구원을 얻었고, 총독이 구원을 얻자 구브로섬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척 사역의 실제입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써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가정에 세워진 총독, 직장에 세워진 총독, 캠퍼스에 세워진 총독을 변화시키는 개척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의 인생을
人生이 바뀐다

화평당 최영옥 집사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인생 간증

기쁨의교회는 예배 때에 예수님으로 변화된 간증을 발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벌써 우리교회가 30년이 되었네요. 저도 기쁨 의교회에 온 지가 만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30주년 기념예배가 발표되었을 때, 이 곳에서 보낸 30년의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귀한 곳에 있었을까요?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아 들 주연이가 태어난지 2개월 만에 회귀병으로 판명되어 10번정도 수술후 입퇴원을 반복했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리고 살더라도 견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 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지요.

희망이 없어서 날마다 울었던 거 기억하시죠? 꿈에서조차 우울했던 그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선교단체 목사 언니를 통해서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1996년 7월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이었는데 몇십년 만의 폭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었던 그날, 목사언니는 아이가 셋이었는데 한명은 말기고 한명은 안고 한명은 업고 그 폭우를 뚫고 버스를 타고 왔고, 저도 폭우를 뚫고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타고 왔었죠. 목사님께서 그날 물에 빠진 생쥐같은 우리들을 반겨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떠오릅니다.

주연이가 목사님의 기도로 나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비를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지만, 저의 바램과 다르게 목사님은 오히려 주연이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왜냐하면 아이의 영혼 이전에 아이의 문제로 오랜 고통가운데 있었던 저를 고쳐주심이 더 우선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기쁨의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기도모임에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었죠. 그때 주연이는 뇌혈관 기형이었고 머리에 물이 많이 차서 뇌압이 높은 상태라 집에서는 잠을 못자고 밤새 울었었는데 너무나 우울했고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아들만큼 같은 그 곳으로 인도할 방지 못했다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연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오면 주연이는 고래고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단점을 주셔서 한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병원에서는 견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했던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그 후에 많이 늦긴 했지만 32개월에 걷게 되었고 40개월쯤 말할수도 있게 되었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 삿대질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주연이가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IMF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 다 모르고시고 하나님은 안계시다고 하면서 한시간 동안 울면서 불평 불만 원망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때가 금요일이 기도회였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교회였는데 그때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러나 돌덩이처럼 딱딱한 나의 마음에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시간이 넘는 원망 불평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잠잠히 들어주셨습니다. 온유하고 잔잔하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시간 동안 화개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그때 주셨던 말씀으로 버틸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가정불화로 늘 불안해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나를 이 가정에서 첫 열매로 불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친정엄마와 외할머니도 화양리 개척때부터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드리는데는 엄마의 장례예배를 통해서 친정아버지와 오빠가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늘 교회가자고 하면 적성에 안맞는다. 너네 나 천국가라, 나는 지옥간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엄마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빠가 하는 말은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니 듣지 마시고, 아빠가 재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받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죠. 아빠가 너무나 감격해서 늘 마음이 낙심이 되었는데, 그런 아빠가 지금은 엄마가 보시던 성경책을 하루에 2-3시간씩 읽으시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 보고계시죠? 저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가족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연합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모습이고 연합하고 죄투성이인 사람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제가 앞으로 얼마동안 지낼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영혼을 울음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성도의 죽음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 기쁨의 교회 뜻대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기쁨의교회 방송 설교 안내 - CTS TV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생명의 말씀

1) 케이블TV: 용인(기남방송 222번), 광주(C&M 700번)
2) IPTV: Sky Life 183번, KT olleh TV 236번, Btv 551번, U+ 18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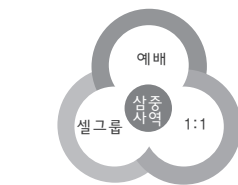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서울국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국동 방송 서울,경기: 106.9 M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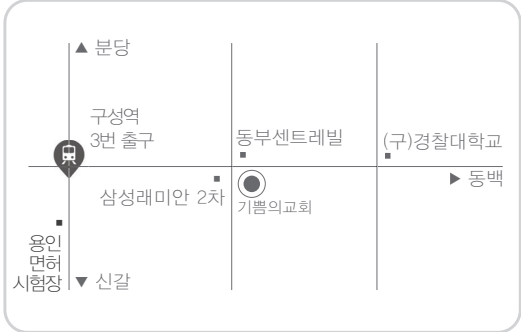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영동국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국동 방송 강원 영동: 90.1 MHz

▶ 기쁨의 교회 사역전력



▶ 기쁨의 교회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안내

[지 하 철 / 버스]

▶ 신논현역 7번 출구 또는 강남역 5번 출구 → 1241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동일하이빌차 하차

▶ 구성역(수인분당선 GTX)3번출구 → 31, 33, 34-2, 670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동일하이빌차 하차

현금 온라인 계좌 안내

● 주일헌금 : SC제일은행	572-20-230777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십 일 조 : KEB하나은행	630-006691-277	예금주 : 기쁨의교회
● 감사헌금 : SC제일은행	572-20-308622	예금주 : 기쁨의교회
● 건축헌금 : 국 민 은 행	402601-04-012600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선교헌금 : SC제일은행	572-20-179152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카라건축 : SC제일은행	572-20-305118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카라일반 : SC제일은행	572-20-305129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카라장학 : SC제일은행	572-20-321620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모바일헌금 QR코드



창립 30주년

2026년 교회 표어

하나가 되게 하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LET US BE ONE

JOHN 17:22



담임목사 정 의 호

제2026-30호 통권 6955호

7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기쁨의교회

교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6 Tel. 031-713-0691 Fax. 031-713-0692
MTC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119 Tel. 031-711-0191

